

# 결혼에서의 용서

안 경 승 교수  
(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결혼에 대한 창조질서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결혼과 관련한 성경의 주요 구절들을 통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비유되어진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결혼에 있어서 언약, 사랑, 그리고 용서의 연관 관계를 추적하며, 사랑과 용서의 긴밀한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치료 현장에서 부부 관계의 회복에 용서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제시한다. 용서를 치료 도구로 접근한 방법들을 구분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용서 과정의 요소 중에서 겸손과 공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자기에와 수치가 겸손과 공감을 가로 막는 성격적 성향임을 지적한다. 겸손과 공감은 용서를 위한 전략적 기술의 역할만이 아니고,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용서로 인해서 훈련되는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심단어:** 결혼, 용서, 자기에, 수치, 겸손, 공감

## I. 여는 글

10여 년 간 부부 상담을 해온 한 치료사는 우리나라에서 세 쌍 중 한 쌍 정도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세 쌍 중 한 쌍은 이혼했거나 이혼 위기에 있고, 나머지 한 쌍은 불행하지만 그냥 결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이단 종파와 관련된 정당명이 '가정당' 이었고 선전 구호가 '가정을 살리자' 이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이 없는 가정의 현상만은 아니다. 많은 기독교 가정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결혼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흔히들 사람들은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후의 삶까지 풍성하게 하는 요소로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다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결혼 생활에서 기쁨과 고통, 사랑과 상처는 불가피하게 찾아온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과 결혼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상처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처를 다루는 것이 곧 사랑을 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여러 교회들과 가정 사역 단체들은 이런 맥락에서 결혼예비학교나 부부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정의와 의미, 혼수, 남녀 차이, 관계분석, 성(性), 재정, 신앙, 시간관리, 부부대화, 갈등해소, 양가 가정과의 관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본다. 결혼을 올바르게 이해할 뿐 만 아니라, 갈등과 상처를 미연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결혼을 위한 교육 및 상담적 접근에 용서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30%의 사랑과 70%의 용서로 빚어진다고 고백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정한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남, 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용서라는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간다.

본 논문은 첫째, 결혼에 있어서 용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한다. 둘째, 용서 전략에 있어서 '공감과 겸손'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결혼 관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살펴보고, 결혼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 도구로 용서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동안 용서를 중심으로 관계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던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해서, 용서 상담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겸손과 공감에 집중한다. 결혼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현장

이 배경이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구분은 가능하지만 두 당사자 모두 용서를 하고, 또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 II. 펴는 글

### 1. 결혼과 용서

Everett Worthington은 “용서는 서투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는 사랑이다”라는 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용서와 사랑의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한다. 또한 용서가 사랑의 풀어진 술기를 다시 꿰매는 재봉사와 같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분노의 주름을 다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한다.<sup>1)</sup> 결혼한 부부는 사랑하겠다는 약속 하나로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결합을 지속한다. 서투를 수밖에 없고, 술기가 풀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 때 용서는 뜯어진 부분을 다시 꿰매는 재봉사이고, 이 과정 중에 생겨난 분노로 주름진 마음을 다려주는 다리미와 같다. 결혼의 견고함의 기초가 되는 약속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연관관계를 살펴본다.

#### 1) 결혼과 창조질서

최초의 결혼 예식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거행되었다. 첫 번째 결혼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맺어지면서, 몇 가지 변할 수 없는 원리를 밝혀주고 있다. 첫째, 결혼은 하나 되는 것이다. 여자와 남자가 같은 육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한 육체이다.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 이끌었다.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창 2:23)라고 말한다. 아담과 하와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분리에서 하나로, 소외에서 참여로, 둘에서 하나로, 떠나감에서 함께함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하나 된 관계를 통해, 관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up>2)</sup> 창 1:27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신다. 창 5:1, 2에서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들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결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이다.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즉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된 결혼 관계 안에서 모델이 되고 상징화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창조기사는 결혼의 목적이 배우자 간의 상호 지지와 도움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helper suitable for him)을 지으리라’(창 2:18)고 말씀하고 있다. ‘배필’로 번역된 네겏(neged)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 ‘앞에, 전면에, 맞은편에, 조화되게(like opposite him)’ 서는 것을 의미하는 전치사와 관련되는 명사이다.<sup>3)</sup> 즉 동일성 보다는 상보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동일성을 강조했다면 ‘그와 같은(like him)’이 더 적절하다. 돕고 지지하는 결혼은 상호적이고 서로에게 자기를 주는 사랑의 성격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아담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돕는 만남이었을 뿐 아니라 하와에게 역시 필요한 한 것이 도움이었다.

여기서 표현된 성경의 에셀(ezer, 돕는다, 돕는 자)은 보통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서에서는 군사적 도움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사 30:5; 겔12:14; 호13:9).<sup>4)</sup>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을 기념하는 ‘도움의 돌’이라고 할 때 사용되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쉰 사이에 세웠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삼상 7:12)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Eben-ezer)이라고 하였다. 결혼 관계에서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돕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돕는 자'의 역할 모델은 하나님이시다.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일관된 방식, 즉 '사랑과 신실'로 도와야 한다.

## 2) 언약과 용서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가르침은 호세아 1-3장에서 발견된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부정하고 신실하지 못한 아내였다. 그녀는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세 아이를 가졌고 그 중에 둘은 비록 호세아가 키웠지만 그의 자녀가 아니었다. 첫째 아이 이름은 이스르엘(Jezreel)이라 했고 '하나님께서 흠뻑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아이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인 로루하마(Loruhamah)라는 이름을 붙였다. 셋째는 로암미(Loammi)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세 이름이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예표해 주고 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언약적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이다.<sup>5)</sup>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타락이 결혼의 서약을 어긴 것으로 연결짓고 있다. 잠언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2:17)는 말씀으로 결혼 약속을 입으로만 했던 배우자를 책망하고 있다.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결혼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결혼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언약의 관계이다(말 2:14). 성경에서 언약이란 통치자와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엄숙한 선언이다. 언약은 전자에 의해 후자에게 부과되고 지켜질 때는 축복이지만, 어길 때는 책망이 찾아온다. 부부가 결혼의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엄숙하고 구속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지켜가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Jack Balswick는 언약을 가족 관계에 적용해서 그 형태들을 구분했고, 성경의 언약 개념에

따라서 가족 관계가 형성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sup>6)</sup>

둘째, 정절, 신실, 충실과 함께 은혜, 자비, 용서가 결혼 관계의 본질적 내용으로 등장한다. 결혼에서의 정절은 한시적 또는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시 되 갚아야 하는 조건화된 충실이 아니다.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 의존하는 신실함도 아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지켜 가셨고, 그 핵심적 표현으로 용서를 베푸신다. 호세아는 고멜의 부정한 모습을 용서함으로써, 그녀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 갔다. 죄가 인간의 삶과 관계에 파고든 이후, 용서는 결혼에 있어서 필연적 결과이다.

### 3) 사랑과 용서

신약에서 에베소서(5:21-33)는 기독교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순종과 사랑, 신실과 지도력의 틀로 구성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24-25절). 여기서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용서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할 수 있는 가르침은 첫째, 사랑은 용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아니 사랑이 용서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sup>7)</sup>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용서를 이루어 주셨다. 그 분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없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러하듯, 결혼 관계 역시 사랑과 용서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결혼이 용서라는 끈으로 엮여지지 않으면, 둘 사이의 사랑은 거부와 무정과 냉소와 미움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결혼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아왔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편안함을 찾아야만 하는 특이한 관계이다. 여기에 용서라는 기반이 없으면 결혼 관계 속에서 사랑은 지속할 수 없다. 배우자들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고는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도 어려워진다.

둘째, 사랑과 용서는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 가는 것이다.<sup>8)</sup>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복음서(마10:38-39; 막8:34-35; 눅9:23-24; 요12:25)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히5:9).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갈2:19-20). 우리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분과 연합하면서 살게 된다(갈5:6, 24). 사랑과 용서는 추상적인 내적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용서에 동참하는 가운데 점점 커가는 구체적 체험과 같은 것이다.<sup>9)</sup>

Robert Sternberg는 사랑이 열정(passion), 친밀함(intimacy), 헌신(commitment)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sup>10)</sup> 용서가 각 구성요소의 부패를 방지하고,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고친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각 요소에 균열을 가져오게 한다.<sup>11)</sup> 열정은 사랑의 뜨거운 느낌이지만, 상처는 열정을 식게 한다. 용서는 상처로 관계가 찢어지고 커다란 벽이 높아만 질 때, 그 벽을 허물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용서는 정서적 재충전을 제공해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한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마음을 고백하면서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열정을 되살리는 청사진을 그리게 한다.

친밀감은 열정보다 천천히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역시 천천히 진행된다. 친밀감 역시 용서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마음과 여러 상처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다. 부부 관계가 변질되고 방어와 원한이 세워지면서 친밀감은 서서히 줄어든다. 용서는 배우자의 모습을 깎아내리기 보다는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마음을 열게 한다. 상처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쌓이게 될 때, 헌신

은 갑자기 그리고 심각하게 깨어진다. Sternberg은 헌신이 마치 불을 켜고 끄는 전구 스위치와 같다고 묘사했다.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은 헌신할 수 없다고 전원을 내려버릴 수 있다. 모든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용서는 헌신에 대한 스위치를 다시 올리도록 힘을 부여해 준다.

## 2. 용서 상담의 현장

용서라는 주제가 담고 있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적 성격 때문에, 일반 치유현장에서 반 용서의 흐름이 있었다. Robert Enright와 Joanna North는 “지난 시간 동안 용서에 관한 연구가 10년에 하나 정도의 비율로 있었고, 그 이전에는 거의 600여년 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여러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서 용서가 단순히 교회, 회당, 모스크, 사찰 내에서나 실행되어야 할 주제라는 가정이 논박되었다. 종교적 요소를 가진 치료적 개입이 상담 현장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가정 역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되었다.<sup>13)</sup> 오히려 치료 현장의 실증적 증거들은 용서가 분노, 우울, 원가족과 관련된 문제, 성적 학대, 강박증, 성격 장애, 죄의식, 약물 학대, 그리고 부부 관계의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된다는 것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용서가 개인만이 아니고 결혼 관계와 가족을 돕는 자원으로 문헌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했다.<sup>14)</sup>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고, 이것이 단순히 일반 상담 영역만이 아니고 기독교 상담에서도 용서를 상담의 주제로 삼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 1) 용서의 지평

용서는 “모든 대가는 지불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와 대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반동이 제기된다. 용서는 사랑, 연민, 긍휼과 함께 하지만, 옳음과 그림,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도 수반한다.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가치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다.<sup>15)</sup> 결혼 관계에서는 결혼 서약이 침범을 받는 일이 생긴다. 신뢰가 무너

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쉽게 생기기 않는다. 인간 내면은 공정함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 시켜 달라는 마음이 생긴다. 용서하는 것이 마치 공평과 정의를 부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적인 갈등이 자리 잡는다.

또한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의 절박한 현실을 가장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는 상담자 역시 용서라는 주제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된다. 오히려 용서라는 주제가 피해자의 짐을 더는 것이 아니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용서하는 것은 가해자가 다시 학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희생자의 고통의 자리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Ellen Bass와 Laura Davis는 *The Courage to Heal* 라는 책에서 치료적 도구로 용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헛된 지름길이다. . . . 용서는 목적이 아니고, 단지 일종의 부산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부산물도 아니다.”<sup>16)</sup> 그들은 용서가 피해자가 가진 감정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축소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가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에게 모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가해자가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상처가 지속되는 위협성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Michael McCullough는 “용서는 압제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 . 우리는 이러한 개입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피상담자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추정을 피해야만 한다”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sup>17)</sup> 잘못된 용서나 거짓 용서로 말미암아 조종, 부인, 회피, 불공정 또는 암묵적 학대가 파생될 수 있다. 가족 치료사인 Terry Hargrave는 ‘용서가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사랑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경험한 가족과 상대하면서, 상담자는 그 손상의 가혹한 현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 . . 가족 구성원들의 손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치료자가 할 일이다.”<sup>18)</sup>

실제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권하는 글은 접하게 되지만, 가해자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을 권하는 글은 적다. 분명한 것은 죄는 죄가 되어

야 한다는 사실이다.<sup>19)</sup> 용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값싼 은혜가 되어서도 안된다. 은혜는 잘못을 저질러도 좋다는 면허증이 아니다. 더구나 결혼 관계에서 용서 받는 사람이 동정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원한다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끔 행동할 필요가 있다. 용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를 삶의 온전함으로 초대하는 은혜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sup>20)</sup> 은혜의 체험인 용서는 인간의 연약함, 깨어지기 쉬움,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에 대한 불공정과 무례와 가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쌍방 간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치유를 위해서 용서는 유용하다. Scott Peck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용서는 필요하다. 부모가 사과를 하거나 귀를 기울이든 그렇지 않든, 부모님을 용서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이 괴로운 상태로 있게 된다. 우리는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릴 수는 없다. 용서라는 힘든 일을 회피해 보려고 마음의 상처를 눌러 보지만 결국 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용서뿐이다.”<sup>21)</sup>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것 외에도, 현재와 미래의 생길 지도 모르는 상처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일종의 상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에 주의하고, 스스로가 예방 접종을 하는 것으로 용서를 활용할 수 있다.<sup>22)</sup>

## 2) 용서 상담의 실제

교육, 상담, 치료적 관점에서 용서를 돕는 연구는 학자들에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첫째, 용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용서의 발견을 강조하는 이들은 용서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나란 존재를 수용할 때 내가 변하고, 용서는 내가 나를 상처 준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고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3)</sup> Ernest Kurtz와 Katherine Ketcham은 로올라(Loyola) 대학의 목회연구센터에서 행한 연구 프로젝트에 근거해서, 용서가 의지적 행동이 아니고 두 가지 발견과 관련된 내적 변혁이라고 제시한다.<sup>24)</sup>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은 우선 용서 받은 존재로서의 자기를 발견했고, 그리고 이 인식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자신이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용서를 체험한 신앙인의 고백에 있어서도 이러한 발견적 차원의 성격을 발견한다. 특히 용서받음의 체험과 용서하는 능력의 발견 사이에 견고한 연관 관계를 보게 된다. Thomas Merton은 “우리는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기까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sup>25)</sup>고 고백하고 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신앙적 체험은 가장 깊은 차원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체험과 은혜에 근거해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본질적인 용서의 과정이다. C. S. Lewis은 학창 시절에 여러 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동급생에 대한 용서 문제로 씨름해 왔다.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기도로 그 문제를 계속 간구했고 어느 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는 친구 Malcolm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다. “지난 주, 기도 중에 나는 갑자기 지난 30년 동안 용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up>26)</sup>

둘째, 용서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는 방향이 있다. 인지 발달론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인지 능력이 변화하면서 상대방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Enright는 용서의 과정 자체를 Piaget와 Kohlberg에 의해서 구체화된 인지와 도덕성의 발달 과정과 연계하였다. 용서 전략적인 면에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인지적 관점 전환이 용서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입장과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핵심은 적절한 인지적 구념(construct)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에 상처를 준 사람과 사건을 다시 보는 것이다.<sup>27)</sup> 이를 통해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약점에 공감하고, 과거에 그가 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수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서 용서가 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된

다. 용서가 가르쳐질 수 있고 배워질 수 있다는 가정이 증명되었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룹 중심의 용서 교육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 소망, 자존감, 불안과 우울에 있어서 치유적 효과가 나타났다.<sup>28)</sup> 용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켜야할 것을 제안한다: (1) 용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정확한 이해, (2) 그들 스스로 선택한 용서하는 것에 대한 헌신, (3)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인지적 연습, (4) 공감과 동정 같은 정서적 연습, (5) 고통을 수용하고 풀어내면서 복수의 순환이나 감정 전이가 그치게 하는 연습.

셋째, 가족 치료 현장에 용서를 적용한 Hargrave는 다른 모델과는 달리 순차적인 단계 과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sup>29)</sup> 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 공정, 권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관계의 윤리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관계는 권리와 의무 사이의 동등함이 있을 때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점을 강조한다. 가족 내에 공정과 신뢰의 선이 침범되었을 때, 희생자는 그들이 가장 의존했던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은 왜곡된 행동 또는 분노와 수치의 감정으로 표현된다. 그러한 역동은 불가피하게 가족 내 세대 간의 어려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 때 용서가 균형의 회복, 비난의 포기, 화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면제와 용서라는 두 가지 범주를 통해 용서의 과정을 개념화 했다. 면제는 통찰과 이해로 구분되는데, 가해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불공정함을 처리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통찰은 피해자가 불공정한 규칙을 지속하게 하는 파괴적 패턴을 인식하고 고쳐가도록 한다. 이해는 가해자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 그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한다. 두 번째 영역이 용서이다.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용서의 분명한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신뢰할 만한 행동으로 보상하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어간다. 용서의 명백한 행위는 이전에 상처 준 행동에 대한 공개된 논의와 선택 가능한 관계 패턴을 설정하는 것이다.

### 3. 용서와 성격

용서 과정에 있어서 겸손과 공감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모델이 있고,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접근 방법 역시 그 과정 가운데 공감을 중요한 한 요소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겸손과 공감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요소들이 용서를 돕는 구체적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각 배우자의 기본적 태도와 성격을 연습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 성취되는 용서의 효과가 그 의미를 더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과 체휼하심의 공감적 능력이 부부 모두에게 필요하다.

#### 1) 겸손과 공감의 장애물

부부가 키워가는 겸손과 공감은 용서를 가져오게 하는 귀중한 치료적 도구이고 또한 근본적으로 훈련해야 할 성격적 요소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기록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골 3:12-13)고 권고한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요(마 11:29),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체휼(sympathize)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4:15)고 증거 한다. 이 분에게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러한 겸손과 공감을 가로막은, 더 나아가 용서 자체도 불가능 하게 하는 장벽을 보게 된다. 물론 죄와 관련되어 있고, 문화적 기제로써의 불가피한 영향력도 연계되어 있다. Leron Shults와 Steven Sandage는 용서와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성격의 유형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30)</sup>

상호 주관성의 부족은 비용서의 성격과 관련된다.	상호주관성의 형성은 용서가 가능한 성격과 관련된다.
불안/불안정한 애착 스타일	정서적 안정/안전한 애착 스타일
복수	흔쾌히 반응함
되새김	자아 분화
자기애	공감
수치에	취약 겸손(또는 죄의식에 취약함)

건강한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e)은 정서적 안정, 안전한 애착 스타일, 흔쾌히 반응함 자기 분화, 공감과 겸손 같은 용서와 관련된 건강한 특징들을 가져오게 한다. 반면에 상호 주관성의 실패는 복수, 되새김, 자기애, 수치 같은 용서를 무너뜨리는 성격적 특성을 만든다고 본다. 이 중에서 공감을 가로막는 자기애적 성향과 겸손을 왜곡되게 하는 수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감은 동정으로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직시하고 자기애적 자기 관심을 초월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겸손은 비방어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직면하며 수치를 극복하는 능력이다.”<sup>31)</sup> 물론 자기애-공감과 수치-겸손의 도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Bobby Cunningham은 Kohut의 자기 심리학적 접근에 근거해서, 부정적 자아상과 무가치함이 관계 가운데 공감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고, 용서와 공감력을 개발하는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32)</sup>

용서와 관련된 성격을 연구한 Robert Emmons는 자기애적 성향이 용서하는 성격의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지적한다.<sup>33)</sup> 자기애적인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애는 건강한 자신감 이상의 극단적 자기 자랑과 자기 과대성, 공감과 상호 주관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상대방이 구별된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확대 정도의 대상으로 보려는 성향이 있다. 내적인 자기상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정과 긍정적 평가를 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분노로 반발한다. 이 분노는 사실은 수치의

고통스러운 취약성을 피하기 위한 왜곡된 방어막이다.

특히 관계 영역에서 자기애적 성향은 이기심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훼손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와 욕구와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당함을 경험할 때, 수용, 보복, 용서라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자기애적 사람의 대부분의 선택은 보복이다. 힘에 반항하거나 통제력을 벗어나는 사람, 또는 자신이 완벽하다는 믿음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상대가 누구든 반격하고 보복한다. 자기애가 건강한 자존감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 성경은 '자기 사랑'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변화해야 할 성향으로 도전하고 있다.

수치(shame)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덜다 또는 가리우다”이다. 수치는 노출의 느낌이나 숨기거나 사라지려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수치에 취약한 이들은 상호 갈등의 현장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재빨리 방어적이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나쁜 일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보통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느낀다. 자신이 인간 존재로서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고, 무가치하거나,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고 느낀다.<sup>34)</sup> 자신의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절하하고 완벽주의적인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과 강박적으로 비교하며 결점을 과장한다. 수치는 다른 사람들과 잘못된 규범으로부터 부여된 '나는 어떤 존재이어야만 한다'는 왜곡된 상에서부터 생겨난다.<sup>35)</sup> 수용적이지 못했던 부모, 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억압적이고 엄격한 환경, 잘못된 문화적 규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숨기려는 방어막은 관계 가운데 곧 드러난다. Patton은 “죄의식은 이성적 원리에 따라 비교적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데 반해서, 수치는 관계적이고 개인적이다.”<sup>36)</sup>이라고 지적한다. 수치는 관계 속에서 분노, 호전성, 회피, 비난, 자기 비하의 얼굴로 표현된다.<sup>37)</sup> 피해자 입에도 불구하고 상처 난 자존감으로 인해 수치심은 학대 상황을 자신이 가져오게 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행동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기도 한다. 설

사 수치를 경험하는 사람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수치에 대한 해답은 수용의 은혜이다. 수치의 이면에 자리 잡은 거절과 유기의 두려움은 수용되는 존재라는 체험으로 치유되기 시작한다. “수치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갔지만, 수용하는 은혜가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sup>38)</sup> 무엇보다 잘못된 수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 때 수치가 변화되어 겸손으로 발전한다. 겸손은 받은 은혜와 용서에 대한 자기 수용과 감사로 생긴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것이 그 사람의 관계적 체면을 회복시키고 수치가 아닌 겸손으로 깊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수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수치를 자신의 정서로 자리 잡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 2) 겸손과 용서

겸손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 역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겸손은 상처를 준 배우자 보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믿는다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진다. 어느 정도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너그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공감으로 나아가며 용서를 고려하게 된다.

산상보훈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명제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겸손을 준비시킨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도록 이끄신다(마 5:1-11).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 놓고 그것을 깊게 인식해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시킨다(마 6:5-8).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들이고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한다(마 6:13).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debtor)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debs)를 사

하여 주옵시고”(마 6:12)라는 말씀은 우리 역시 가해자로서 채무자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겸손이 용서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한다.

일반적 관점에서 겸손은 자기에 대한 인식,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는 것이다. Sandage는 겸손이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며, 자기와 다른 이들을 향한 실제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sup>39)</sup> 겸손은 이 밖에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자신과 타인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고 분화된 자세를 가진다. (2)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열려있다. (3)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수용 능력을 가진다. (3)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본다. (4) 자기 권리 보다는 감사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sup>40)</sup>

부부 관계 가운데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배우자 각자의 연약한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내어놓는다. 서로를 향한 자신의 잘못을 비난 하지 않고 펼쳐 놓을 수 있도록 한다.<sup>41)</sup> 둘째, 다음과 같은 이성화 작업을 한다. “나는 아내(남편)의 동기를 알고 그의 관점을 이해한다. 나는 그가 느껴왔던 것을 느낀다. 나 역시 그 사람과 같이 악한 일을 해 왔고 지금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 받기를 원한다. 내 약점에 대해서 자비를 원한다. 나에게 대해서 자비를 원할 때 상대방에게 공정함을 요구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사람이 빈궁한 것을 안다. 이 사람을 돕고 싶다. 내가 느꼈던 미움, 분노, 보복의 욕구로부터 그 사람을 놓아주기 원한다. 그것은 그럴 만한 일이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sup>42)</sup>

셋째, 인생 스토리를 다시 쓴다. 우리는 여전히 학대받은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를 용서하려면 그런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가정과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관점에서 인생 스토리를 다시 써야 한다. 결백하다는 생각 보다는 자신을 낮추며 책임의 일부를 인정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에게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 당신을 화나게 했던 일들이 많다는 걸 안다”고 인정할 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첫째, 자신의 상처를 줌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고, 생각했던 것 보다 용서해야 할 일이 적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에게 방어할만한 변명거리를 주지 않는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 역시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전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확인한다.<sup>43)</sup>

셋째, 긴 인생길의 동반자인 배우자의 실패는 용서의 성품을 기르는 기회로 보고, 자신의 실패는 겸손을 연습할 기회로 본다. 요 20:22-23에 따르면 제자들은 주님께 성령을 받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Martha Stortz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기억에 있다고 한다.<sup>44)</sup>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던 기억을 각인했고, 결국 이것이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했다고 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에 앞서, 자신들 스스로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했다. 세상에서 마주치는 용서를 구하는 연약한 이들과의 만남은 자신들에게 향했던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했다. 기억하면서 그들은 용서하였다. 역으로 용서는 기억을 새롭게 했고, 제자들은 용서 받은 용서자가 되어갔다.

Johann Arnold는 '결혼 생활에서의 용서' 라는 글에서 Lewis의 고백을 인용하며, 결혼 생활에서 겸손에 기초한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매일의 삶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용서가 있습니다. 완고한 시어머니, 폭군 같은 남편, 투덜거리는 아내, 이기적인 딸, 속이는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매일 저녁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입니다."<sup>45)</sup>

### 3) 공감과 용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일흔 번 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함께 마18:23-35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소개된다. 임금은 종의 '엎드리어 절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해 주었

다.”(27절) 여기서 ‘불쌍히 여긴 마음’이 탕감의 동기이자 비결이었다.<sup>46)</sup> 그러나 탕감 받은 종은 그의 빚진 동료 종을 대면했을 때, 어떤 동정의 마음도 갖지 않았다. 임금에게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 종은 겸손을 특징지우는 건설적 슬픔(고후7:8-13)이 없었다. 용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증명된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었다.<sup>47)</sup>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 하나”(33절)라고 임금은 책망한다. 그는 자기만 염려했고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한 공감을 보이지 않았다. 엄청난 혜택을 받았지만 그의 이기적인 가치관 속에 공감이 파고들 여지가 없었다.

공감은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국면을 모두 포함한다. 한시적이지만 인지적으로 우리의 관점을 묶어놓고 상대방의 관점을 취한다.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동정과 친절의 감정을 갖는다. 공감이 발전하는 세 단계의 과정이 제시된다.<sup>48)</sup> 공감적 정확성(empathic accuracy)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공감적 동일시(empathic identification)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감정과 마음의 형편을 공유하면서 상대방과 함께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다. 공감적 동정(empathic compassion)은 상대방에게 동정을 느끼고 돌보면서 처음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다.

관계 가운데 공감이 힘든 이유 중의 하나는 상대방 존재 자체에 대한 왜곡된 평가 때문이다. 상처를 받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 반응은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부부 치료사 John Gottman이 제시한 부부가 파경에 이르는 네 단계에도 이 점이 나타난다.<sup>49)</sup> 비난으로 시작한다. 생각에 그치던 비난은 말로 표현된다. 상대의 비난은 방어를 만들어 낸다. 방어 역시 생각 속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며 말로 표현된다. 논쟁이 심각해지면 관계 결렬의 셋째 단계인 경멸에 이른다. 경멸이 지속되면서 상대방을 보는 시각이 점차 바뀐다. 처음에 비난과 방어의 대상은 배우자의 어떤 행위와 특정한 모습이지만 경멸에 있어서의 대상은 사람 자체이다. 어떤 부정적 사건 하나를 계기로 상대방에 대한 관점이 고착된다. 마치 낙타의 등을 지푸라기가 부러뜨리는 것 같다. 부부는 장미 색깔의 안경을 던져 버리고 검

은 색 안경을 걸치게 된다.<sup>50)</sup> 그 안경으로는 상대의 부정적인 면 만 보이게 된다. 부정적 성향을 담고 있는 호칭을 만들어서 배우자를 악마화 한다. 결국 부부 관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감정의 문을 닫고 마음에 돌 벽을 쌓거나, 또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을 대치한다.

겸손이 우리 자신을 보게 했다면, 공감은 상대방의 모습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고통스러운 아픔의 사건들로 인해 나와 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다. 공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1) 공감은 책임지지 않는 상대방을 봐주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좀 더 깊게 가해자의 왜곡된 동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 보호의 기능을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심리적 간격을 줄인다. (3) 공감은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이 사건의 원인이라거나 상처 입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하는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부부의 상호 공감은 건강한 애착 관계에서 보편적인 것이다.<sup>51)</sup>

공감을 훈련하기 위해서 첫째, 배우자가 상처준 사건 중에 그가 느꼈을 것을 느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 한다. 공감의 훈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공감을 위해 필요한 관점 변화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능력이 더 강화되면 될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의 질은 높아진다. 배우자의 과거를 살펴보고 상처를 받았던 것, 그리고 그가 상처 받았던 것처럼 가족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패턴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배우자가 받아 주기만 했거나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랐고,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상식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장했을 수도 있다. 남을 공감할 줄 모르게 자신이 중요하다는 과장된 느낌을 가지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타고난 기질과 고통스런 경험,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연약한 죄성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깨달으며,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넓혀진다. “어떻게 이럴 수가?”의 의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배우자 측에서 가질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추측하며 그 입장에서 편지를 써본다. 물론 동기를 부여한 원인을 안다고 해서 저지른 비행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Spring은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을 알면 더 적절하고 양심을 덜 품고 너무 극단적이거나 유감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은 당신의 황폐한 느낌을 덜어주고 좀 더 건설하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해와 용서를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 . 동정은 그가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과 균형을 잡아야 한다. 나는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만큼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관심을 가질 것과 그를 위한 만큼 자신에게도 순수한 관심을 갖기를 부탁한다.”<sup>52)</sup>

둘째, 부부 상담 과정에 공감을 증진하는 실제적 방법을 적용한다. 상담자의 공감적 미러링(empathic mirroring) 자체가 치유를 도울 수 있다. Kohut은 공감적 반영이 경험되는 치료 환경에서 정서적 체험의 회복, 수치의 방어막이 줄어드는 것, 자기 위로의 증가 등의 치유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한다.<sup>53)</sup> 치료 현장에서 공감을 연습하는 위해서 우선 (1) 언어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상담자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관점’ 으로부터 사건을 설명하라고 내담자에게 요구 한다. 상담자 역시 “그러면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 . .”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진술을 한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어떤 문제를 보는 하나의 옳은 시각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 간의 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표현 방식에 변화를 갖도록 한다. 분노나 수치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상대방의 반응 방식에 영향을 준다.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돌아오는 방법을 결정’ 하기 때문에 ‘토론과 다툼은 언제나 그들이 시작한 것과 똑 같은 어조로 끝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부부가 대화하며 외적으로 전달하는 얼굴 표정을 비롯한 비언어적 전달 방식은 4년 후의 결혼 관계를 예측하게 한다.<sup>54)</sup> (2)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획한다. 어떤 만남이 서로에게 긍정적 교류가 되는지 생각하고 실천한다. 배우자와 함께 했던 좋은 체험을 상기한다. 부부 간의 긍정적 상호 작용의 비율이 부정적인 상호 작용 보다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관계의 질

은 높아지고, 회복의 가능성도 증대된다. (3) 이야기식 접근을 한다. 자신들의 체험에 대해서 덜 비난적인 이야기로 다시 말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야기 심리학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과 관계의 발달은 이야기 구성의 과정이라고 제안한다. 겸손을 위한 대안으로서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고, 목적하시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는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4) 정서적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유와 이야기를 사용한다.<sup>55)</sup> (5) 정서 중심적 부부 치료를 도입해서 다른 배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 상처 받은 그리고 상처를 준 배우자에 대한 이러한 관찰이 상대방 배우자의 공감을 증진하게 한다.<sup>56)</sup> 한 편에서 약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은 배우자의 고통을 함께 하며 반응할 수 있다. 강한 감정이 아닌 부드러운 감정(슬픔, 고독, 불안, 수치심 등)과 속에서 우러나온 자신의 이야기(자신의 상처, 피로, 절망)를 나누게 될 때, 공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6)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노력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서로 공유해야 용서도 할 수 있고, 용서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배우자에게 용기를 주고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음을 여는 것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을 낮추게 한다. 더 나아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듣는 것은 공감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용서를 향한 길을 열게 한다.

### III. 닫는 글

기독교 가정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 주는 모델과 같은 곳이다. 비록 가정이 악한 세상 속에서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 자주 드러나는 현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의 향기는 피어나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결혼이고 지탱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며, 그 이음매 역할을 용서가 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놓

고 용서를 구하듯, 한 몸 이룬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 하시듯,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시는 희생도 기꺼이 담당하셨다.

결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용서를 핵심 주제로 삼으셨다. 이 목적을 달성해 가는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나게 하시며, 은혜의 깊이를 절감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을 빚으신다. 용서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결혼의 관계에서 결국 성품이 변해가야 한다. 자기애의 견고한 틀이 깨지고 수치의 검은 휘장이 걷어지며, 겸손이 깊어져야 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는 말씀과도 같이, 너무나 무지한 마음과 눈을 감고 있는 상대방을 보게 하신다. 주님은 사람들의 황폐해 가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며(요 11:35),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호 6:1)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고멜을 찾아 나서는 호세아의 심정을 가진 이들에게 임했으면 한다. 더 이상 되갚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영적, 도덕적 파산을 아파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마 18:26) 이 땅의 많은 부부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한다.

【 참고문헌 】

- 목회와 신학 편집부. 『마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7.
- 오영희. “용서를 통한 한(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7(1995): 70-94.
- Allender, Dan and Longman III, Tremper. *Bold Love*. 『담대한 사랑』. 마영례역. 서울: 이레서원, 2003.
- Augsburger, David. *Caring Enough to Forgive*. Scottsdale, PA.: Regal Press, 1981.
- Balswick, Jack O. and Balswick, Judith K. *The Family*.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 Bass, Ellen and Davis, Laura. *The Courage to Heal*. New York: HarperPerennial, 1994.
- Bonhoeffer, Dietrich. *The Cost of Discipleship*. New York: Macmillan, 1959.
- Casey, Keree L. “Surviving Abuse: Shame, Anger, Forgiveness.” *Pastoral Psychology*. 46(1998): 223-231.
- Cunningham, Bobby B. “치유적인 용서의 역할: 소외와 유기에 대한 목양적 대응.” 『신학지남』. 64(1997): 305-329.
- Emmons, Robert A. “Personality and Forgivenes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and C. E. Thoresen. (eds.) New York: Guilford, 2000.
- Enright, Robert D. and North, Joanna. “Introducing Forgiveness.” *Exploring Forgiveness*. R. D. Enright and J. North. (eds.)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8.
- Freedman, Suzzane R. and Enright, Robert D.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996): 983-992.
- Fortune, Marie M. *Sexual Violence: The Unmentionable Sin*. New York: Pilgrim Press, 1983.
- Gottman, John M. “A Theory of Marital Dissolution and 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993): 57-75.
- Gottman, John M., Levenson, Robert. and Woodin, Erica. “Facial Expressions during Marital Conflict.”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2001):

37-57.

- Hargrave, Terry D. *Families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가족치료와 용서』. 문미선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4.
- Hargrave, Terry D. and Sells, James N. "Forgiveness: A Review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998): 21-36.
- Hargrave, Terry D. and Sells, James N. "The Development of a Forgiveness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52(1997): 41-63.
- Hill, E. Wayne and Mullen, Paul M. "Contexts for Understanding Forgiveness and Repentance as Discovery: A Pastoral Care Perspective." *Journal of Pastoral Care*. 54(2000): 287-296.
- Kline, Jr., C. Benton. "Marriage Today: A Theological Carpet Ba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33(1979): 24-37.
- Kohut, Heinz. *How Does Psychoanalysis Cur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Kurtz, Ernest and Ketcham, Katherine. *The Spirituality of Imperfection: Story Telling and the Journey to Wholeness*. Nashville, TN.: 1992.
- Lewis, C. S. *Letters to Malcolm: Chiefly on Prayer*. New York: Harcourt Brace, 1992.
- Luskin, Fred. *Forgive for Good: A Proven Prescription for Health and Happiness*. San Francisco: Harper, 2002.
- McCullough, Michael E. Sandage, Steven J. and Worthington, Jr., Everett L. "Charles Williams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Theology and Therapy."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4(1995): 355-364.
- McCullough, Michael E., Emmons, Robert A. and Tsang, Jo-Ann.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2002): 112-127.
- Merton, Thomas. *Thought in Solitud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56.
- Patton, John.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A Pastoral Care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1985.
- Peck, Scott. *Further along the Road Less Traveled*. 『아직도 가야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 김영범 역. 서울: 열음사, 2003.
- Sandage, Steven J. "An Ego-Humility Model of Forgiveness: Theoretical Foundation." *Marriage and the Family: A Christian Journal*. 2(1999):

259-276.

- Shults, F. Leron and Sandage, Steven J. *The Faces of Forgiveness: Searching for Wholeness and Salv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 Smedes, Lewis B. *Shame and Grace: Healing the Shame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1993.
- Spring, Janis A. *How Can I Forgive You?* 『용서의 기술』. 양은모 역. 서울: 메가트랜드, 2007.
- Sternberg, Robert. "A Triangle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1986): 119-135.
- Stoop, David. *Forgiving The Unforgivable*.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하는 용서 이야기』.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5.
- Stortz, Martha E. "The Practice of Forgiveness: Disciples as Forgiven Forgiver." *Word and World*. 27(2007): 14-31.
- Wenham, Gordon J. *Worl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 Waco, Tex.: Word Books, 1987.
- Worthington, Jr., Everett. L. "An Empathy-Humility-Commitment Model of Forgiveness Applied within Family Dyads."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998): 59-76.
- \_\_\_\_\_. "The Pyramid Model of Forgiveness: Some Interdisciplinary Speculations about Unforgiveness and the Promotion of Forgiveness."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ological Perspective*. E. L. Worthington, Jr. (ed.) Randor, PA.: 1998.
- \_\_\_\_\_. *Forgiving and Reconciliation: Bridges to Wholeness and Hop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

[ 후주 ]

- 1) Everett L. Worthington, Jr., *Forgiving and Reconciliation: Bridges to Wholeness and Hope*(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238.
- 2) C. Benton Kline, Jr., "Marriage Today: A Theological Carpet Ba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33(1979): 25.
- 3) 일반적으로 결혼의 주요 목적과 기능을 4가지로 말하고 있다. 1) 성관계가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자유롭고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2)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서 종족

- 을 보존하고 사회를 지속시키는 것, 3) 부부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족과의 관계 더나가서는 다른 사회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이루는 기능, 4)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 4) Gordon J. Wenham, *Worl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 (Waco, Tex.: Word Books, 1987), 68.
  - 5) Kline, "Marriage Today," 27.
  - 6) Jack O. Balswick and Judith K. Balswick, *The Family*,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21-26.
  - 7) Dan Allender and Tremper Longman III., *Bold Love*, 『답대한 사랑』, 마영례 역 (서울: 이레서원, 2003), 50-52.
  - 8)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New York: Macmillan, 1959), 80.
  - 9) F. Leron Shults and Steven J. Sandage. *The Faces of Forgiveness: Searching for Wholeness and Salvation*(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3), 196.
  - 10) Robert Sternberg, "A Triangle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1986): 119-135.
  - 11) Everett L. Worthington, Jr., "An Empathy-Humility-Commitment Model of Forgiveness Applied within Family Dyads,"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998): 61-62.
  - 12) Robert D. Enright and Joanna North, "Introducing Forgiveness," *Exploring Forgiveness*, R. D. Enright and J. North, (eds.)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8), 4.
  - 13) Terry D. Hargrave and James N. Sells, "Forgiveness: A Review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998): 28.
  - 14) Terry D. Hargrave and James N. Sells, "The Development of a Forgiveness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52(1997): 41.
  - 15) David Stoop, *Forgiving The Unforgivable*,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하는 용서 이야기』, 정성준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5), 19.
  - 16) Ellen Bass and Laura Davis, *The Courage to Heal* (New York: HarperPerennial, 1994), 162.
  - 17) Michael E. McCullough, Steven J. Sandage, and Everett L. Worthington, Jr., "Charles Williams on Interpersonal Forgiveness: Theology and Therapy,"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4(1995): 362.
  - 18) Hargrave & Sells, "Forgiveness," 29.
  - 19) Marie M. Fortune, *Sexual Violence: The Unmentionable Sin* (New York: Pilgrim Press, 1983), 208.
  - 20) Keree L. Casey, "Surviving Abuse: Shame, Anger, Forgiveness," *Pastoral Psychology* 46(1998): 228.
  - 21) Scott Peck, *Further along the Road Less Traveled*, 『아직도 가야할 길: 끝나지 않은 여행』, 김영범 역 (서울: 열음사, 2003), 50-51.
  - 22) Fred Luskin, *Forgive for Good: A Proven Prescription for Health and Happiness* (San Francisco: Harper, 2002), 178.
  - 23) David Augsburger, *Caring Enough to Forgive* (Scottsdale, PA.: Regal Press, 1981),

- 57; E. Wayne Hill and Paul M. Mullen, "Contexts for Understanding Forgiveness and Repentance as Discovery: A Pastoral Care Perspective," *Journal of Pastoral Care* 54(2000): 289; John Patton,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A Pastoral Care Perspective* (Nashville, TN.: Abingdon, 1985), 148. Patton은 "용서가 용서하려고 하거나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배우면서가 아니고, 자신의 수치를 극복하고 상처와 파산의 체험을 넘어서며, 화해의 커다란 과정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 24) Ernest Kurtz and Katherine Ketcham, *The Spirituality of Imperfection: Story Telling and the Journey to Wholeness* (Nashville, TN.: 1992), 218-219.
- 25) Thomas Merton, *Thought in Solitud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56), 37.
- 26) C. S. Lewis, *Letters to Malcolm: Chiefly on Prayer* (New York: Harcourt Brace, 1992), 106.
- 27) 오영희, "용서를 통한 한(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7(1995): 86. 인지적 재구조화의 또 다른 표현들로 "재귀인 표현, 긍정적인 인지적 귀인, 재구조화, 과거를 다시 쓰기, 새로운 눈으로 보기, 건설적인 대안주기, 상처를 재평가하기 등"이 소개되고 있다.
- 28) Suzzane R. Freedman and Robert D. Enright,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996): 983-992.
- 29) Terry D. Hargrave, *Families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가족치료와 용서』, 문미선 역 (서울: 하나의학사, 2004), 45-152.
- 30) Shults & Sandage. *The Faces of Forgiveness*, 61.
- 31) Shults & Sandage. *The Faces of Forgiveness*, 58.
- 32) Bobby B. Cunningham, "치유적인 용서의 역할: 소외와 유기에 대한 목양적 대응," 『신학지남』64(1997): 312-313.
- 33) Robert A. Emmons, "Personality and Forgiveness,"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M. E. McCullough, K. I. Pargament, and C. E. Thoresen, (eds.) (New York: Guilford, 2000), 164.
- 34) Lewis B. Smedes, *Shame and Grace: Healing the Shame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Harper, 1993), 3.
- 35) Smedes, *Shame and Grace*, 38.
- 36) Patton,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39.
- 37) Janis A. Spring, *How Can I Forgive You?* 『용서의 기술』, 양은모 역 (서울: 메가트렌드, 2007), 71.
- 38) Smedes, *Shame and Grace*, 107-109.
- 39) Marvin J. Sandage, "An Ego-Humility Model of Forgiveness: Theoretical Foundation," *Marriage and the Family: A Christian Journal* 2(1999): 262.
- 40) Emmons, "Personality and Forgiveness," 164-165.
- 41) Worthington, "An Empathy-Humility-Commitment Model of Forgiveness Applied Within Family Dyads," 70.
- 42) Worthington, "An Empathy-Humility-Commitment Model of Forgiveness Applied Within

- Family Dyads.” 63.
- 43) Spring, *How Can I Forgive You?* 303.
- 44) Martha E. Stortz, “The Practice of Forgiveness: Disciples as Forgiven Forgive,” *Word and World* 27(2007): 14-22.
- 45) [www.brudershof.com/articles/jca/ForgivenessMarriage.htm](http://www.brudershof.com/articles/jca/ForgivenessMarriage.htm)
- 46) 목회와 신학 편집부, 『마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07), 323.
- 47) Michael E. McCullough, Robert A. Emmons, and Jo-Ann Tsang,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2002): 112.
- 48) Everett L. Worthington, Jr., “The Pyramid Model of Forgiveness: Some Interdisciplinary Speculations about Unforgiveness and the Promotion of Forgiveness,”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and Theological Perspective*, E. L. Worthington, Jr.(ed.) (Randor, PA.: 1998), 119.
- 49) John M. Gottman, “A Theory of Marital Dissolution and 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993): 57-75.
- 50) Worthington, *Forgiving and Reconciliation*, 228.
- 51) Shults & Sandage. *The Faces of Forgiveness*, 59.
- 52) Spring, *How Can I Forgive You?* 108-109.
- 53) Heinz Kohut, *How Does Psychoanalysis Cur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78.
- 54) John M. Gottman, Robert Levenson, and Erica Woodin, “Facial Expressions during Marital Conflict,”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1(2001): 37-57. 한 연구에 의하면 제스처와 얼굴 표정이 메시지가 가진 의미의 55%를 전달한다고 한다. 목소리의 어조, 말하는 속도, 리듬, 그리고 강세가 38%를 전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은 7%를 전달한다.
- 55) Worthington, “An Empathy-Humility-Commitment Model of Forgiveness Applied Within Family Dyads,” 66-67.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 한 예가 된다. “두 여인이 싸우게 되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 받은 여인은 험담과 비난으로 대응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높은 언덕 꼭대기에 살고 있는 지혜의 여인에게 찾아 갔다. 그 여인은 이들 각자에게 과제를 주었다.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80 kg 정도 나가는 돌을 언덕 위까지 굴러 올라가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의 여인의 집 앞까지 80kg의 조약들을 끌고 오는 과제를 주었다. 둘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애써서 수행했다. 그들이 끝마쳤을 때, 지혜의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돌려놓으라고 지시했다.”
- 56) Worthington, “An Empathy-Humility-Commitment Model of Forgiveness Applied Within Family Dyads,” 68.

【 Abstract 】

Forgiveness in Marriage

Kyung Seung Ahn  
(ACTS)

This paper begins with several biblical passages which deal with principles for marriage. What we find in the Bible is the use of marriage as a paradigm or model for understanding and insight abou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people. According to his principles, the reality of a reconciled marriage of man and woman in Christ depends on the gifts of divine forgiveness and human forgiveness. Then,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s addressing forgiveness as a therapeutic issue. Techniques and processes of forgiveness are summarized for finding the important characters in marriage. Mature forgivers are characterized by two primary virtues: humility and empathy. Narcissism and shame are the natural barriers to empathy and humility. The spouses need healing from false or undeserved shame, not only from narcissism and guilt. Forgiveness is described as requiring empathy for the offender, and humility to see oneself as being as fallible and needy as the offender. Key Words: Marriage, Forgiveness, Narcissism, Shame, Humility, Empathy